2020년도
Vol. 42

우리의 도시 사카이에서
인권 문화의 꽃을 피우자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

마음의 소리

마음을 이어주는 상냥한 마음

배려하는 행동과 올바른 지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

P1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란?
P2 가맹단체 소개
P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인권에 대하여
P4 기고문 모리미쯔 레오 씨
'불안감' 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P5-6 제41회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P7 인권 교육 DVD 안내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에서는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서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마음의 소리"를 발행하여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권협 홈페이지
https://www.jinkenkyo.jp

편집・발행 (2021년 3월 발행)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찌 3-1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내
TEL 072-221-9280 FAX 072-228-8070

인권 교육 DVD 안내

사카이시 인권추진과에서는 인권 교육 DVD를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DVD는 일본어 음성만 수록되어 있으며 외국어 더빙이나 자막은 없습니다.

문의처 TEL 072-228-7420 FAX 072-228-8070

DVD **개인정보**

어린이 방범 스쿨 약 23분
인터넷・SNS 트러블편

가족이나 친구들과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는 지금 아이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와 관련된 트러블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을 전문가 선생님이 친절하고 즐겁게 가르쳐 줍니다.

DVD **성소수자의 인권**

함께 생각해 보는 LGBTs 약 25분
①~③권

성에 관한 것은 모두가 그 주체이며, 이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별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성별에 끌리는가는 개성의 하나입니다.

본 시리즈는 성의 다양성을 인간 개성의 하나로서 배우는 기회로 삼아 LGBTs의 당사자인 아동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기 긍정감, 자존감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상 교재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SDGs(지속가능한 발전목표)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15년 동안 빈곤과 불평등・양극화, 기후변화, 자원의 고갈, 자연파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세계 공통의 17가지 골(목표)을 말합니다.

인권협에서는 SDGs 패널과 씰을 통해 SDGs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카이시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하면서 폭넓은 인권 교육・계몽 활동을 추진하는 등 SDGs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카이시는 2018년 6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SDGs 미래도시'로 선정돼 SDGs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s未来都市・堺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uture City, SAKAI CITY

사카이시에서는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해 '사카이 세이프 시티・프로그램'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 5년간의 계획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활동과 실적을 토대로 활동 명칭을 '세이프 시티 사카이'로 정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SAFE CITY SAKAI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진켄쿄/인권협)란?

인권협은 부라쿠(部落/부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각종 시민단체, 기업, 종교법인 등과 같은 많은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권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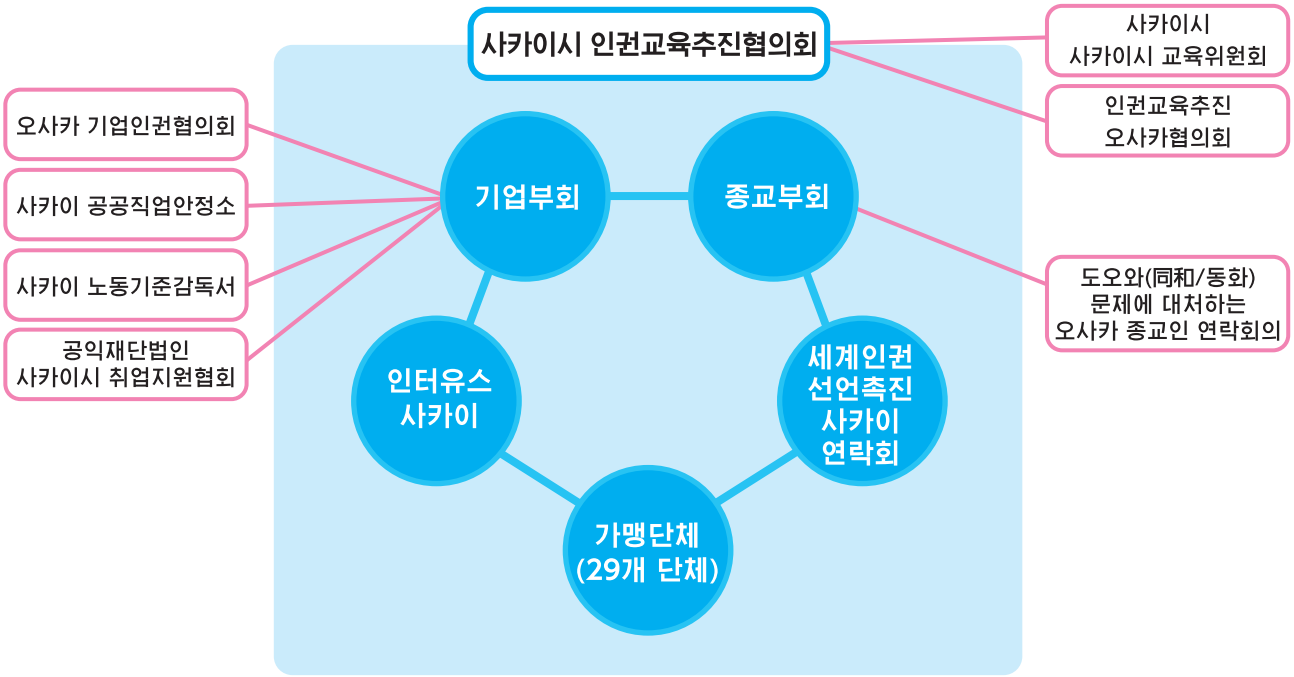
사카이시 인권협의 심볼마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인권을 지키며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직도·임원

회 장 | 카나마루 나오히로(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부회장 | 쿠보 테루오(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노무라 토모아키(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
키도 카즈토모(사카이 시립 교원장회)
요시무라 세이지(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야마구찌 노리코(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시라모토 타다시(사카이시 보육회)
타케다 신이찌(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연합회 사카이지부)

회 계 | 코야마 토시미(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모리우찌 케이코(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시지구위원회)



- 사카이시 교육회
- 사카이시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사카이시 청소년 지도원 연락협의회
-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협의회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민간 교육보육시설 연맹
- 사카이 시립 교원장회
- 사카이지구 행정상담위원회
- 일반사단법인 오사카부 전수학교 각종학교연합회
-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지사 센보쿠 주거센터
-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사카이시 사립 유치원연합회
- 사카이시 인권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보육회
- 사카이시 민생위원 아동위원연합회
- 일반사단법인 사카이시 노인클럽연합회
- 사카이시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 자유 도오와(同和/동화)회 오사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연합회 사카이지부
-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 사카이시 사회교육위원회의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장애인단체연합회
- 사카이시 농업협동조합
-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모자 · 과부복지회
- 사카이 상공회의소
-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시지구위원회
- 사회복지법인 사카이시 사회복지협의회
- 오사카 부립학교장협회 제8지구

사카이시 보육회

사카이시 보육회는 사카이시 유아교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시 당국, 후원자, 교육자 및 유치원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1930년 6월에 결성한 민간단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산되었지만, 유치원의 점진적인 부흥과 동시에 보육회도 1947년에 다시 발족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시민의 요망이 높아지면서 유치원도 매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수도 늘어나 보육회는 더욱 알차게 발전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 보육회는 창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보육회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활동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다른 부현(府県)으로 시찰연수 및 사전사후 연수를 실시
- 보호자 상호 간을 연결하는 연수의 장과 기회를 제공
- 육아 지원의 일환으로 "육아광장"을 개최
- 표현력이 풍부한 작품 전시와 계발활동 "유치원전"을 개최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연극관람과 노래모임 "유치원 모임"을 개최
-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사카이 시립 유치원의 특징적인 사업과 보육회의 사업보고를 정리한 회지 작성 및 정보 발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카이시 보육회는 어린이, 보호자, 교직원을 이어주는 장, 그리고 지역과 유치원을 이어주는 장으로서 90년의 역사를 새겨왔습니다.

많은 선배 보호자 여러분과 역대 원장님들도 회원 자격으로 보육회에 계속 남아 사카이 시립 유치원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교육의 장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생활양식이 크게 달라졌고, 외출 자제나 활동 제한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염자나 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생활에서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아동의 빈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SDGs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응원부대인 보육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창립 당시 선인들의 생각을 계승하면서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사카이 시립 교원장회

사카이 시립 교원장회는 사카이 시립 유치원장회, 사카이 시립 초등학교장회, 사카이 시립 중학교장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방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카이 시립 유치원장회]

본 회는 사카이 시립 유치원의 원장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조직되며, 회원 상호 간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직능을 향상시키고 사카이 시립 유치원 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학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유아기에 어울리는 놀이와 생활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배움의 싹을 키우는 교육을 추진해 갑니다.

[사카이 시립 초등학교장회]

본 회는 사카이 시립 초등학교장·사카이 시립 지원학교장으로 조직되며, 회원 상호 간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직능을 향상시키고 사카이 시립 초등학교 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타 단체와 제휴하여 사카이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회에서는 창립 이래 '자유도시 사카이'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시기마다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응한 각종 사업의 추진, 연구활동, 교육조건의 정비를 통해 사카이시 초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카이 시립 중학교장회]

본 회는 사카이 시립 중학교장으로 조직되며, 중학교 교육상의 과제와 시책을 연구하고, 학교 운영의 지침을 탐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협조·연대를 심화하여 사카이 시립 중학교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회에서는 중학교 교육상의 조사연구 및 교육 활동 추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이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각 학교와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연 다음에도 원아, 아동,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케어 등 '새로운 생활양식' 하에서 이 감염증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와 교육의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인권 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시와 시교육위원회, 관계 기관, 그리고 가정·지역과의 제휴·협력을 도모하면서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음까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악의가 없더라도 편견으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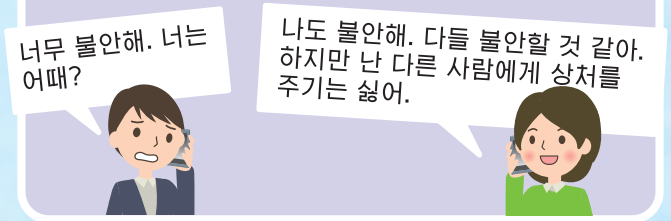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 감염된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아낸 뒤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익명 게시판을 통해 비판하는 행위
- 감염된 사람이나 의료 관계자의 자녀에 대한 괴롭힘
- 외국인에 대한 짓궂은 행위

모두가 불안한 지금이야말로 배려하는 행동과 올바른 지식으로 서로 돕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불안해졌을 때는

- 정보로부터 거리를 둔다
-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 안심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본다



감사의 마음과 성원을 보내자

사회를 떠받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경의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돕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합시다.

배려하는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권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서적, 광고,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아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복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읽어내는 능력**
- **미디어에 접속해 활용하는 능력**
-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에 있어서 하나의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다각적 시야에서 정밀히 조사한 뒤 주체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자!

최근 들어 인터넷 보급에 따라 SNS 등을 통해 간단하게 정보를 얻거나 발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정보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차별이나 편견으로 이어지는 정보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글에 '좋아요'를 눌러 동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잘 확인하고 판단하여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편견과 차별을 낳고 바이러스 봉쇄를 어렵게 만든다.

모리미쯔 레오 씨

스와 적십자병원 임상심리사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 심리사회적 지지 연구센터 등록전문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모든 동물의 본능이며, 원래 공포심은 생존의 확률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올바르게 무서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인간의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멀리함으로써 일단은 안심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위해 혐오해야 할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찾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는 '인종', '지역', '직종', '사람' 등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편견과 차별'. 이것은 더 나아가 두 가지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해는 편견과 차별이 확산되면 자신이 비난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필요한 상담이나 검사를 주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염 확대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폐해는 의료종사자의 피폐입니다. 전국의 의료종사자들은 최전선에서 검사나 치료 등 감염자 대응으로 쉴 틈조차 없이 분주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보건의료기관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따가운 눈총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감염증과의 싸움은 장기전이며,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의료종사자들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 이것이 사스나 에볼라에 대응해 싸웠던 인류가 얻은 교훈입니다. 의료종사자들은 기피나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응원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사회 전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감염증 확산의 조기 해결로 이어집니다.

'올바르게 무서워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무서워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인 찾기나 공격에 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자신과 가족의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심호흡! 이런 시기이기에 더욱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돕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안감'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봅시다.

1

우선은 릴렉스.
편안한 휴식 시간을 만들자.

2

뭔가 몰두하거나
기분전환이 되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한다.
운동도 효과가 있다!

3

이 '소동'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4

'그 정보는 올바른가?'
차분하게
정보의 신뢰성을 따져보자.

5

잘 먹고(건강한 식사),
잘 자고(질 좋은 수면),
자신을 돌보자.

무심코 빠져들기 쉬운 '불안감'의 감염을 인식하고 자가돌봄에 힘씁시다.

인용 "적십자 NEWS 4월호 NO.959" P3

지금 나의 일상 (초등학교 6학년) (이 작문은 5학년 때 작성한 것입니다)

나는 5살 때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초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달리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 몇 번인가 커브에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는지 아시나요? 곤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상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나는 친구와 함께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자주 갑니다. 공원에 가면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과 같은 놀이기구를 사용해 놀기도 하고 술래잡기를 하기도 합니다.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지나기 힘든 좁은 길이나 규제봉으로 막아 둔 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놀이기구를 사용해서 놀 때는 땅이 움푹 팬 곳이나 모래밭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직접 휠체어를 조작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친구나 가족,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를 때 도움을 받으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안심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말이 되어 나옵니다.

앞으로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갈 때는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 과 '편견' 과 '인권' 에 대하여 (중학교 2학년)

작년 봄의 일이다. 나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과 알게 되었다.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와 나는 금세 친해졌다.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로부터 '나, 사실은 바이섹슈얼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LGBT였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나는 도덕 수업과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편견은 없어' 라고. 스스로 좋은 대답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나는 편견이 없다는 말이 싫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다들 내가 LGBT라는 걸 알게 되면,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 편견은 없다고… . 나는 그 말이 속상해. 내가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야.' 이 메시지를 보고서야 나는 내가 전한 '편견은 없어' 라는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모두들 나를 LGBT 사람으로 취급할 뿐 동등하게 봐주지 않아' 라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내 말을 후회하고 그녀에게 사죄했다. 그녀는 사죄를 받아 주었다. 그녀가 보낸,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익살스러운 이모티콘이 몹시 슬프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의자는 앉는 것, 신발은 신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LGBT 사람' 에게는 '편견은 없다' 가 모범답안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날 그녀를 '같은 인간' 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무엇' 으로 인식해 버린 것이다.

'편견은 없다' 라는 말은 상대방과 대등해지고 싶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우 훌륭한 말이다. 하지만 듣는 시각에 따라서는 '당신은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상대가 비정상이고 자신은 보통이라는 말도 된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느낀 것과 본 것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 책이나 도덕의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등이 소중하다.

'편견은 없다' 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나는 그녀와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리고 '성' 과 '편견' 과 '인권' 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싶다.

작품집에는 응모된 2,435점의 작품 중 특선작품 20점을 게재하였습니다.

작품집 홈페이지
https://www.jinkenkyo.jp/past-message/

아버지가 주신 생명과 말 (지원학교 고등부 3학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제 동생과 동생 친구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자, 그 친구가 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두고 바보취급해서 동생이 화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자신이 청각지원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잘 들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싸움의 원인을 듣고,

'왜 바보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과

'왜 나는 귀가 들리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쭉 고민이 계속되었고, 점차 '죽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된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미숙아로 태어났단다. 태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았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온 힘을 다해 수술해 주신 덕분에 살았지. 하지만 그 대신 눈과 귀에 문제가 생겼단다. 그렇지만 아빠는 네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태어나 줘서 기뻤단다. 태어나 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에게도 힘든 일이 많지만, 너를 보면 기운이 나. 큰 활력이 된다. 장애가 있는 아이라도 아빠와 엄마의 소중한 아이란다. 너랑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안 들린다는 점뿐이잖아? 장애라는 핸디캡은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아빠의 역할은 너를 훌륭한 어른으로 만드는 거야. 앞으로는 즐거운 일이 많단다. 제일 큰 불효가 뭔지 아니? 그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야. 자살만은 절대 하지 마."

아버지의 힘차고 또렷한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장애가 있든 없든 나답게 살아가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싶다' 고 생각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살은 주위 사람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방황의 터널/일본어 학습 (성인)

저는 일 관계로 대만에 와 있던 남편을 알게 되었고, 일본에 온 지 벌써 30년 이상이 됩니다. 일본은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이지만, 읽는 법도 의미도 다르고 대만에는 히라가나도 없습니다.

'大丈夫' 는 일본어로 '다이조부' 라고 발음하고 '문제없다' 는 의미이지만, 대만에서 '남자 중의 남자' 를 의미합니다.

'다이마루(大丸)' 를 '오마루' 라 읽어서 주변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건물 관리, 오코노미야키 가게, 고급 요릿집의 설거지, 사장님 어머니 뒷바라지 등 갖가지 일을 했습니다. 오코노미야키도 대만에는 없습니다. 뒤집개로 오코노미야키를 뒤집는 일도 어려웠고, 가루 섞는 일도 어려워서 계속 망치기만 했습니다. 점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내 쪽으로 와서 내 발을 밟았습니다. 정말 나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낮일을 마친 다음에는 고급 요릿집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일은 오사카에서 살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남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카이에 있는 남편의 집에서 출퇴근하게 되었고, 인권 후레아이 센터의 일본어 교실 '쯔도이' 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처럼 말하고 싶다!', '일본어를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 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한자는 어려워! 하지만 공부는 즐거워! 히라가나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연하장을 썼을 때, 연하장에는 '쉼표(、)' 나 '마침표(。)'는 적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일본인처럼 글을 읽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일본어 장음 'ー' 과 촉음 'っ' 읽기가 좀처럼 능숙해지지 않습니다.

작년 3월에 요양보호사 초임자 연수를 받았습니다. 일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공책에 필기하고 있으니, 남편이 상냥하게 "대단하네"라며 연필을 깎아 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2급 합격! 남편도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오랜만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푸짐하게 차려서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요!"라며 반겨주는 소탈하고 개방적인 대만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자, 일본의 폐쇄적인 부분을 느끼고 얼마간 쓸쓸해졌습니다. 일본인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혼네(본심)' 인지 '타테마에(겉치레)'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해져도 '낮은 벽'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아 쓸쓸해집니다.

젊은 외국인들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게 되면 낮 시간의 교실은 금세 그만두고 맙니다. 친해져도 금방 이별이 다가옵니다.

대만에서 돌아왔을 때 일본어 교실 '쯔도이' 에서는 가을 페어 무대 연습을 하고 있어서 잠깐 나만 외톨이가 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통근하면서 전철 갈아타기 횟수가 늘어나고 동생들이 일본에 오는 등 생활도 분주해졌습니다. '대만에 돌아가면 더 이상 일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수준의 일본어는 그리 힘든 것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공부는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 그냥 재밌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실감이나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 이게 뭐지?', '다른 데서는 질문하기 어려워도 일본어 교실 '쯔도이' 에서라면 물어볼 수 있겠지?' 등등 터널 속에서 혼자 자문자답을 거듭했습니다.

입원했던 병원에서 돌아온 사장님 어머니가 "진 씨, 오랫동안 고마워요"라고 진심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묵직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문화를 이해할 거야. 혹시 '폐쇄적' 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신중하다는 것일까? 일본인과 같은 입장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기르고, 대만의 친척들과도 이어 나갈 거야.

새로운 해, 저는 드디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일본의 훌륭함을 믿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